

environment NEWS



9월 제주서 세계최대 환경회의의 WCC 열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WCC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주최로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회의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첫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89개국에서 124개 정부기관, 1,018개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했다. 마빈 오돔 셀오일 회장, 마이클 맥 신젠타 최고경영자(CEO) 등 친환경 기업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자연의 회복력'. 자연의 자정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대안이 논의되며 개회식 등을 제외한 9월 7일~11일, 매일 70~130여개의 환경보전 관련 행사가 열린다. 특히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세계리더스대화'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초청된 정치인, 환경전문가, 기업인 등이 청중과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4대강 단속해보니... 환경법위반 절반 넘어



환경부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대강유역의 오염우심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620여 곳을 단속한 결과, 미처리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를 비롯해 총 320여 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대강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유역환경청 감시단, 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위반업소의 적발률은 전체의 50%가 넘는 수치로 지자체의 적발률 보다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37%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이 19%, 방치시설 비정상가동이 15%,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기타 사항이 29%이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들이 4대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등 위반사항을 중대히 간주, 이들 중 188건을 사법처리하여 수사·송치하였다.

다 쓴 플라스틱 모아 '1,800억' 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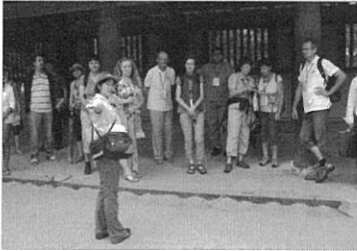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 운영 결과, 약 18만 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1,800여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매립·소각 처리에 드는 비용을 484억원 절감했으며,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재활용품의 가치는 1,350억 원으로 총 1,83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이처럼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경제적 편익 창출, 기업부담금 경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이뤄내며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뉴스

01

이제는 '가족'이 된 그녀들이 나선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립공원 탐방을 돕겠다고 밝혔다. 연간 100만 명의 외국인이 국립공원에 방문함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탐방을 돕기 위해 2015년까지 80명의 외국인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차로 필리핀, 중국, 몽골 등에서 이주한 다문화가족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한 달 동안 북한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생태탐방연수원에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인증되는 제도로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자연생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단은 지금까지 120명의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했다.

경험하라! 국내 최초 환경주제 TED 개최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의 약자인 TED는 '퍼뜨릴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Ideas Worth Spreading)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이벤트이다. 환경부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슬로건인 '자연플러스(+)'를 주제로 지난 8월 1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플러스 TED' 행사를 개최하였다.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한 달여 앞두고 진행된 이벤트는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TED로, 전 세계의 환경축제인 WCC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유명 연사들의 강연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강연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tedxitaewon.org)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되었으며, 환경부와 W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강화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고 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8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먼저,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급 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 및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 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R&D, 행정처리 부담 '확' 줄어든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R&D 서류를 간소화하고 종이를 쓰지 않는 전자평가 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환경 R&D 연구행정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제출서류는 연구개발 계획서, 납세증명서 등 현행 35종에서 27종으로 축소되고, 이중 책자 형태의 보관이 필요한 연차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 2종을 제외한 25종의 서류가 온라인 제출로 전환된다. 이와 더불어 직접 서류를 보며 했던 심의 및 평가 과정도 온라인 서류 접수에 연계해 온라인에 접속해 진행되는 전자평가로 시행된다. 기술원 측은 환경 R&D 연구행정 간소화로 절약하게 되는 종이의 양은 연간 150만 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12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중형 차로 서울-부산거리를 약 70회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석면질병, 이젠 '직접' 가서 도와드려요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8월 14일부터 석면질병(악성중피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석면피해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본인부담금의 약제비 등의 요양급여, 매월 약 9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된다. 과거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약 3천 4백만 원) 등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취약계층으로 피해신청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공단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 등에 도움을 주는 '1:1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나 그 유족은 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6, 5032~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환경분야 부실 시험·검사기관 안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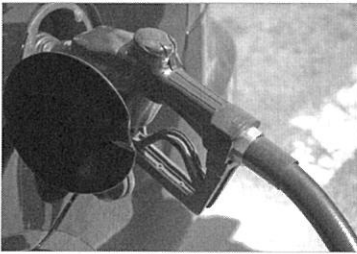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8월 개정하였다. 신설되거나 개정된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기 정도관리를 수시로 실시해 부적합 판정이 난 기관은 그날부터 즉시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업무가 정지된 기관이 다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3개월 경과 후 다시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정했습니다. 측정대행업체 등록시 시설·인력·장비기준 이외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시험·검사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성적서'를 첨부토록 새로 규정했다. 부실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분도 강화해 영업정지 기간 등을 두 배로 늘리도록 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전 과정에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는 한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환경뉴스

02

수도권 자동차연료 품질, ‘★이 다섯 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2년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 휘발유와 경유의 국내 4개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별 환경품질을 평가한 결과, 모두 국제 최고기준에 가까운 수준 이상이라고 밝혔다. 환경품질등급 공개제도는 2006년부터 법에 따라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수도권청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항목별 환경품질등급 분석·평가결과에 따르면, 경유의 환경품질은 모두 별(★) 5개 등급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최고기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도권청 관계자는 “환경품질등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면 자동차 내구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 및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항목별 평가결과는 홈페이지(www.me.go.kr/mam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제3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7월 1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제3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기업인, 연사로 초청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홍성구 지식경제부 장관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위기의 시대인가, 새로운 성장의 시대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손경식 회장은 “중소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도 늘고 우리경제도 잘 된다.”며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신동엽 연세대학교 교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사로 나서 각각 세계 경제흐름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중소기업의 도약방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의 미래 대응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기업 절전경영 보고대회



산업계가 절전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지식경제부,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지난 8월 13일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절전경영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산업계는 자가발전기를 가동하는 등 사무실과 공장의 전기절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산업계의 자발적인 절전경영은 전력피크 기간을 극복하고 국민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절전활동이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므로 산업계가 적극 동참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날 행사는 15개 기업과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업들의 절전경영 노하우가 공개됐다.